

하심이 커지면 원수까지도 포용

선지심을
찾아서

이재원



원응 스님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여 낙막염을 앓게 되었다. 부친이 절에 가서 요양하면 좋겠다고 권유하여 절로 들어 간 그 길이 바로 출가의 길이 되었다. 20살 때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선암사에서 3년 정도 머물다가 정진을 위해서 지리산 벽송사로 들어왔다. 벽송사 위쪽에 있는 석굴을 발견하고 35년에 걸쳐 서암정사를 지었다. 불사를 하면서 60만자나 되는 <회엄경> 사경을 두 번이나 하였다. 금니 사경에 사용한 금의 양은 4kg이요, 닳아서 버린 붓만 60자루나 된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회엄경> 금니 사경 전시회를 가졌다. 지금은 벽송사와 서암정사 회주다.

밤새도록 소나무 위로 비가 후드득거렸고, 빗소리는 귀에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다음 날 새벽 서암정사가 있는 지리산은 은통 안개로 휩싸였다. 청빛 어둠 속을 더듬어 굴법당에 들어섰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불, 부처님의 십대제자가 조각된 굴법당은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였다. 35년이나 걸려서 굴법당을 조성한 원응 스님의 원력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나뭇이 3배를 올렸다.

포대화상의 웃음을 떠올리게 할 만큼 환한 웃음을 짓는 원응 스님 앞에 앉았다. 풀 베고 돌 저다 나르는 일에 평생을 바친 원응 스님의 손은 거칠고 굳은살이 딱딱하게 박혀있다. 스님은 어떤 큰 원력을 세웠기에 방대한 <회엄경>을 15년에 걸쳐서 두 번이나 사경할 수 있었으며, 수십 년의 세월동안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굴법당을 조성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였다.

“부처님께 발원을 할 때는 자기를 위한 것인지 중생을 위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봐요. 큰 원을 가진 사람은 큰 성취를 하게 되고 작은 원을 세우면 작은 그릇 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큰 원을 세우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 수행에는 원이 있었어요. 절에 20-30년 다녔다고 자신은 큰 보살로 생각하지만,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니면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지 한 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보살이지. 자기 기도만을 한다면 아이들이 사랑 주면 좋아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다 자기에게 속는 일입니다.”

원응 스님의 은사 석암 스님은 선암사에서 살기를 권하였지만 원응 스님은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지리산 벽송사로 들어왔다. 전쟁으로 벽송사는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고, 스님은 복구할 엄두마저 나지 않았다. 오로지 참선수행에 마음을 모았다. 어느 날 석암 스님은 “십경을 알아 있어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는데 소견이 생기면?”하고 물었다. 원응 스님은 “불법이 나타나면 헛것이 아니겠습니까?”라는 대답을 하여 전법계를 받았다.

원응 스님은 낮에 굴법당 공사를 하면서 밤에는 <회엄경> 사경을 하였다. 60만자나 되는 <회엄경>을 10년에 걸쳐서 사경하였고, 그 다음에는 5년 만에 금니사경을 끝내었다. 한국 불교계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회엄경 약찬계>를 독송하다보면 53선지식의 명호가 나오는데 그것을 외우면 공덕이 있는 지 물어보았다.

“경전 몇 자 알고 외운다고 해서 깨달아지겠는가? 내 마음을 통해서 깨치는 참선이 낫지. 그래서 옛날 조사들이 참선하라고 한 것이지. 사람들은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것 깨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하심 하는 것이 불교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심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며, 또 나를 버리는 것이다. 왕후장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을 받들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바른 길이다.

“처음에는 인연 있는 사람에게만 하심하게 되지만 마음이 커지면 인연 없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게 됩니다. 하심을 하면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남을 정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포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심으로 일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으요. 중생들은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하심하다보면 아상이 풀어지고 자타(自他)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타가 둘이 아닌 세계는 내가 온전히 비워진 깨달음의 세계이다. 나도 비우고 너도 비우고 모든 사물을 비워 버린 세계가 공의 세계인 것이다. 아무 것도 없다면 공의 세계가 될 수 없다. 비워진 만큼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비워버렸다는 것은 벌써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다. 다 비워버리면 모든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것이 곧 나를 이기고 남을 이기는 것이다.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겨야 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중생심이라한다. 하심하기가 힘들다고 엄살을 부렸더니 “그러면 부처님도 그만큼 힘들지” 하면서 허허 웃으셨다.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다 깨달아지나. 그래도 부처님 흉내라도 내어야. 좋은 모습을 흉내 내다 보면 처음에는 위선에 속하지만, 거듭하다 보면 위선이 사라지고 진짜가 되어버리지. 말더듬이가 흉내 내다가 말더듬이가 되어버리듯이, 위선이라도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참선한다고 앉아있어도 마음은 동서남북을 왔다갔다하면서 망상 속에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다보면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응 스님은 출가 전부터 부친으로부터 ‘이렇고’ 화두를 받아 참선을 하였다. 행자 때는 ‘시심마행

원응 스님 (벽송사 회주)



가족들 위해 기도하러 다닌다면 자기에게 속는 일 초심으로 돌아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 가져야 위선이라도 좋은 일 하다보면 이루어지는 것



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하지만 스님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선(禪)은 죽은 선이라고 한다. 노동선을 주창하시는 것이다.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지만 이 산중에 일 안 하고 살 방법은 없어요. 남의 집을 대신 지는 것이 보살도인데 그늘에서 부채나 활랑활랑 부치고 있는다면 찢집에 백날 있어봐도 아무 소용없지. 일을 안 하면서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 산중에 살려면 자기 스스로 꾸러갈 수 있는 용맹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상좌들에게 일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시절에 눈을 너무 혹사한 탓인지 눈이 많이 쇠약해져서 소일 삼아 부처님의 경구를 쓰신다. 평생을 한시도 쉬지 않고 노동과 정진을 해 오신 스님은 ‘산중에서 공부도 안하고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탄탄하였다. 스님의 말씀이 타성에 젖어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준비가 되어 한 대 내려치는 것만 같았다. 노동자의 손같이 굳은살이 딱딱 박혀있는 원응 스님의 손이 바로 부처님의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부처님의 손을 한 번 잡아보고 싶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논설위원)

2006 대한민국 여성중앙대 우수상품 선정(한국일보)
2006 베스트 마그토린 기업&브랜드 선정(스포츠투 서울)
백여만 회원간담 및 상부동행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아주 특별한 선물
마·그·토·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을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는 스테인레스 (또는 신주) 안쪽에 패러이트 자기방을 첨가하고
유이온이 생성되는 투르마린 실리코넨을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를 포획한
아이디어 퓨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단체 주문시 로고 혹은 이니셜 색인 가능
인터넷 주소창에 마그토린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사이즈-남(여)-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www.magtorin.com

MT 204T ₩86,000
MTB 207G ₩98,000
MT 203G ₩79,000
MTB 206T ₩98,000
MT 205G ₩86,000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676(예금주:최인경)